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2-05-24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고전 문학을 감상하는 의의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삶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 ② 조상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
- ③ 당시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지금의 삶을 돌이켜 보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 ⑤ 현실의 모든 분야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남해 용왕이 괴이한 병을 얻고 슬퍼할 때에 신선의
웃을 입은 도사가 용궁으로 내려와 토끼의 간을 약이 된다고
이른다. 용왕이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 올 사람
을 찾으니 여러 군신 중에 별 주부가 나선다. 물에 오른
별 주부는 온갖 짐승들이 모여 나이 자랑을 하는 광경을
본다. 마침 그 자리에 나타난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안 별
주부는 온갖 곤욕을 치른 끝에 겨우 도망을 친다. 충성이
부족한 탓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 별 주부가 산신
제를 지내고 나서 한곳을 바라보니 토끼 같은 짐승이 있었
다.

(나) 중중모리 : ①건넛산 바위틈에 묘한 짐승이 앉아 있
다. 두 귀는 쫘긋, 두 눈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꼬지는
오뎅. 왼편은 청산이요, 오른편 녹수인데 녹수청산에 휘휘
굽은 소나무, 휘늘어진 버들 속 들락날락 오락가락 엉거주
춤 기는 짐승 분명한 토끼라.

“저기 앉은 게 토 생원 아니요?”

하고 불러 놓으니, 토끼가 듣고서 깡충 뛰며,

“게 뉘가 날 찾나? 게 누구라고 날 찾아. 수양산의 백이
숙제 고사리 캐자 날 찾나? 춘풍 석교 상에 성진 화상이
날 찾나? 무릉도원 가자고 도연명이 날 찾나? 달에 취한
이태백이 함께 놀자 날 찾나? 오신 손님 게 뉘가 날 찾나?
건넛산 파부 토끼가 연분 땃자고 날 찾나?”

(다) “토 선비, 토 선비 하더니만 글도 잘 지으려니와 풍
채도 신선 같구려. 저러한 귀한 몸이 대체 세상에서 무엇
을 하고 지내시는지 어디 세상 경치나 일러 보시오.”

토끼 듣고 좋아라고,

“내 팔자야 최고지요.

중모리 : 인적 없는 녹수청산 해 질 녘에 잠들었다가 달
떠오르면 잠을 깨어 값없는 열매들을 양식 삼아 맛있게 먹
고, 이내 몸은 일이 없어 명산 찾아 구경할 제, 여산 동남
쪽 오로봉과 진국명산 만장봉을 기엄기엄 기어올라 가만히
굽어보니 꽃 사이 나비는 훑날리는 눈발 같고 버들 위 피
꼬리는 흩어지는 금 조각이라. 모란, 작약, 영산홍과 철쭉,
진달래는 여기저기 피었어라. 밤이면 달 보고 낮이면 소풍
할 제, 강산 풍경 흥취 속에 지상신선 나뿐이라. 적송자,
안기생은 나의 제자 삼아 두고 이따금 심심하면 종아리 때
려 가며 그로써 소일하나이다.”

(라) 아니리 : 가만히 토끼란 놈이 듣더니마는,

“별 주부가 상은 발 보오. 하기는 내 팔자가 영락없이
그렇게 생기기는 생겼소. 그러며 어디 수궁 경치 얘기나
한번 해 보시오.”

“에이, 또 수궁 경치 얘기하면 따라오려고?”

“아니, 안 따라갈 테니 어디 얘기나 한번 해 보시오.”

“수궁 경치 얘기하면 대번 당신 환장할 것이요. 우리 수
궁 장하지요. 천지 사이에 바다가 최대고, 인물 중에 신령
이 최고라. 가없는 바다에 천여 칸 집을 짓고 유리 기둥,
호박 주춧돌, 화려한 누각이 공중에 번뜻 솟았는데,

2. 이와 같은 글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끼 리 짝지어진 것은?

㉠ 소리 :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하는 부분으로, ‘창’이라고 한
다.

㉡ 아니리 : 창자가 소리하는 도중에 하는 춤이나 몸짓을 가리

킨다.

- ㉠ 너름새 : 창을 하는 중간 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 하듯 엮어 나가는 사실 부분을 말한다.
- ㉡ 추임새 : 소리 도중 고수가 말하는 ‘얼씨구’, ‘좋다’, ‘으이’ 등의 감탄사를 가리킨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 이 작품에서 사건의 발단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별 부주가 산신제를 지낸 것
- ② 용왕의 병에 토끼의 간이 약이 되는 것
- ③ 별 주부가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안 것
- ④ 충성이 부족한 것을 별주부가 깨달은 것
- ⑤ 온갖 짐승들이 모여 나이 자랑을 하는 것

4. ㉠부분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공간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 ② 대상의 외양과 행동이 묘사되어 있다.
- ③ 짧은 서술로 긴박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대화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이 개입되고 있다.

5. (라)에서 별 주부가 수궁 경치를 과장되게 묘사한 궁극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끼를 수궁에 데려가려고
- ② 토끼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 ③ 토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 ④ 토끼의 위태로운 처지를 강조하려고
- ⑤ 별주부 자신이 사는 곳을 자랑하려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토끼 듣고,

“어, 그놈 본데없이 생겼으되 속에 글이 담백 든 놈이구나. 내가 이놈한테 문자 한 마디라도 밀려서는 나쁜 아니라 세상 문장가들이 나로 인해 망신을 당할 테니, 내가 전

일에 배운 문자를 이놈 앞에 한번 베풀어 볼밖에. 여보, 별 주부 내 문자 꾸러미 굴러 나가요.”

“어디 나와 보시오.”

“법안 홍안이요, 호안은 백발 되고, 당구삼년에 폐풍월하니 우이독경이요, 제사상은 어동육서 홍동백서요, 일구이언하는 놈은 못된 놈이지.”

이놈이 문자를 제멋대로 써 버리기 이런 야단이 없지. 별 주부 듣고 웃으며 이르기를,

“토 선비, 토 선비 하더니만 글도 잘 지으려니와 풍채도 신선 같구려. 저러한 귀한 몸이 대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시는지 어디 세상 경치나 일러 보시오.”

(나) 아니리 : 후닥닥 하다가 자라와 토끼가 서로 마주쳤구나.

“아이고, 코야!”

“아이고, 이마뽀야! 여보, 초면에 방정맞게 남의 이마는 이리 들이받나?”

“당신 이마보다 복스럽게 생긴 내 코도 다쳤소.”

“그러면 우리 피차일반이니 통성명이나 하려요?”

“그럼시다. 대체 게는 누구라 하시오?”

“예, 나는 수궁에서 벼슬살이하는 별 주부 별 나라라 하오.”

토끼 듣고,

“예, 나는 천상 월궁에서 시간을 다스리던 달 속의 토끼였더니, 신선의 술 취하게 먹고 장생불사 약 잘못 지어 이 산중에 귀양 온 토 선비라 합니다.”

(다) 아니리 : 별 주부 듣고 탄복하며,

“토 선비, 토 선비 하더니만 얼굴이 일색이요 발 땀시가 단정하다. 우리 수궁에 들어가시면 훈련대장은 틀림없이 하겠으나, 양미간에 재앙과 사나운 운수로 망하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이 비쳐서 세상에 있다가는 죽을 지경을 여덟 번이나 당하겠소.”

“허허, 그분이 거 초면에 방정맞은 말을 하는고?”

“아니, 그대의 이 세상 팔난 내 이르게 한번 들어 보시오.

(라) 아니리 : 토끼란 놈 듣더니,

“대체 참 좋기는 좋은가 보오. 꼭 그렇게만 될 테면 나

당신을 따라가겠소만.”

“아, 되고말고.”

“아, 그러면 나 따라갈 테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갈까요?”

“같이 내려갑시다.”

“그럼 같이 갑시다.”

6. (가)의 해학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인물의 행동을 과장하여 표현함
- ② 유식한 체하다가 오히려 무식한 모습이 드러남
- ③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함
- ④ 상대의 허점을 바로 찔러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음
- ⑤ 의태어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함

7. (다)에서 별주부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끼의 의향을 떠보면서 토끼를 회유하고 있다.
- ② 앞으로 토끼에게 닥칠 위험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③ 토끼에게 수궁의 좋은 점을 말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토끼를 칭찬하는 한편 앞으로 닥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 ⑤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을 말함으로써 토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8. (가)~(라)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을 찾아 쓰시오.

[조건] 문장 전체를 찾아서 쓸 것.

9. (나)의 토끼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소개 내용이 허풍스러워.
- ②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군.
- ③ 쉬운 고유어만을 골라 사용하는군.
- ④ 자신의 장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네.
- ⑤ 상대를 인신공격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니리 : 후닥닥 하다가 자라와 토끼가 서로 마주쳤구나.

“아이고, 코야!”

“아이고, 이마뺨이야! 여보, 초면에 방정맞게 남의 이마는 이리 들이받나?”

“당신 이마보다 복스럽게 생긴 내 코도 다쳤소.”

“그러면 우리 피차일반이니 통성명이나 하려오?”

“그릅시다. 대체 게는 누구라 하시오?”

“예, 나는 수궁에서 벼슬살이하는 별 주부 별 나리라 하오.”

토끼 듣고,

“예, 나는 천상 월궁에서 시간을 다스리던 달 속의 토끼였더니, 신선의 술 취하게 먹고 장생불사 약 잘못 지어 이 산중에 귀양 온 토 선비라 합니다.”

(나) 자진모리 : 보잘것없는 토끼 그대 신세, 봄여름 다 지내고 대한 엄동 설한풍에 골짜기마다 눈 쌓이고 봉우리에 바람 칠 제, 화초 열매 전혀 없이 앵무 원앙도 끊어졌다. 어둑한 바위틈 발바닥 활짝활짝 던져진 듯 앓은 골은 귀양살이 모양이라. 꽃 피는 봄 이월 굶주린 배 채우려고 이리저리 헤맬 적에 골골이 묻은 것이 모가지 채어 갈 텃이요, 산봉우리마다 서 있는 것이 매 받은 사냥꾼이라. 모가지 채이게 되면 목 졸려 대롱대롱 제수 고기 될 것이요, 물이꾼, 사냥개가 소나무 떡갈잎 포기 사이로 뛰어갈 적에 토끼 놀래 호드득 호드득. 사냥꾼아 매 놓아라. 해동청 보라매가 방울 떨쳐 주먹을 박차고 펄펄 수루루 달려들어 그대 굶전 양발로 당그렇게 추여 들고 고부랑한 주둥이로 양미간 골치 대목을 그저 콕콕.

“허허, 그분이 그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그러기에 누가 거 있는대? 산잔등으로 돌지.”

(다) “산잔등으로 달아나는 토끼, 풀 감투 풀 적삼 입고 방패 궤미를 앞세워, 오는 토끼를 잡으려고 조충에 화약 넣어 반달 같은 방아쇠 고추 같은 불을 얹어 한 눈 찡그리고 반만 일어서서 불꽃이 번쩍 지끈 탕. 토끼 때그르르르르.”

“어따, 그분네가 그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그리 점점 하네. 그러기에 누가 거 있는대? 너른 들로 다니지.”

(라) “에이, 또 수궁 경치 얘기하면 따라오려고?”

“아니, 안 따라갈 테니 어디 애기나 한번 해 보시오.”

“수궁 경치 얘기하면 대번 당신 환장할 것ियो. 우리 수궁 장하지요. 천지 사이에 바다가 최대고, 인물 중에 신령이 최고라. 가없는 바다에 천여 칸 집을 짓고 유리 기둥, 호박 주춧돌, 화려한 누각이 공중에 번뜻 솟았는데,

진양조 : 우리 용왕 즉위하니 온갖 족속 귀히 여기도다. 서왕모의 천일주와 옥반에 담은 안주, 불로초 불사약을 취토록 먹은 후에, 흥취가 도도하면 갓은 미색, 풍악을 놀잇배에 가득 싣고 요지로 들어갈 적에 저 멀리 섬들은 물속에 그려 있고 삼천리 해당화는 약수에 붉었구나. 천하태평하여 달 밝은 추강 위에 어적 소리 화답이라. 이태백이 이런 흥미 알았으면 세상에 왜 있으리? 원컨대 토 서방도 나를 따라서 수궁을 가면 훈련대장은 할 것이고, 미색 풍악을 맘대로 데리고 만세동락을 하오리다.”

10.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등장 인물의 성격이 변화한다.
- ② 주제는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이다.
- ③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계를 풍자하였다.
- ④ 갈래는 판소리 사설이며 제재는 토끼의 간이다.
- ⑤ 고사성어나 한문 어투 등의 지배층 언어가 드러난다.

11. (가)의 장면을 표로 만들 때, 빈칸 ㉠에 들어갈 대사를 찾아 쓰시오.

	자라	토끼
상대방 확인	저기 앉은 게 토 생원 아니오?	대체 게는 누구라 하시오?
자기 소개	㉠	나는 천상 월궁에서 시간을 다스리던 달 속의 토끼였더니, 신선의 술 취하게 먹고 장생불사 약 잘못지어 이 산중에 귀양 온 토 선비라 합니다.

12. (나)~(다)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끼는 반론을 제기하여 별 주부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 ② 별 부주가 토끼에게 닥칠 위험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③ 토끼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별 주부에게 해결책을 묻고 있다.
- ④ 별 주부는 토끼에게 닥칠 또 다른 위험을 말하며 거듭 경고하고 있다.
- ⑤ 토끼는 별 주부의 경고를 부정하고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을 말하고 있다.

13. (라)에서 별 주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 것은?

- ① 수궁은 육지보다 화려하고 즐거운 곳이다.
- ② 토끼는 수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 ③ 육지에서의 열심히 살면 수궁에 갈 수 있다.
- ④ 토끼가 수궁에 가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 ⑤ 토끼가 수궁에 가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남해 용왕이 괴이한 병을 얻고 슬퍼할 때에 신선의 옷을 입은 도사가 용궁으로 내려와 토끼의 간을 약이 된다고 이른다. 용왕이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 올 사람을 찾으니 여러 군신 중에 별 주부가 나선다. 물에 오른 별 주부는 온갖 짐승들이 모여 나이 자랑을 하는 광경을 본다. 마침 그 자리에 나타난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안 별 주부는 온갖 곤욕을 치른 끝에 겨우 도망을 친다. 충성이 부족한 탓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 별 주부가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한곳을 바라보니 토끼 같은 짐승이 있었다.

(나) 중중모리 : 건넛산 바위틈에 묘한 짐승이 앉아 있다. 두 귀는 쫓긋, 두 눈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꼬지는 오뚝. 왼편은 청산이요. 오른편 녹수인데 녹수청산에 휘휘 굽은 소나무, 휘늘어진 버들 속 들락날락 오락가락 엉거주춤 가는 짐승 분명한 토끼라.

“저기 앉은 게 토 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 놓으니, 토끼가 듣고서 깡충 뛰며,

㉠“게 뉘가 날 찾나? 게 누구라고 날 찾아. 수양산의 백이숙제 고사리 캐자 날 찾나? 춘풍 석교 상에 성진 화상이 날 찾나? 무릉도원 가자고 도연명이 날 찾나? 달에 취한 이태백이 함께 놀자 날 찾나? 오신 손님 게 뉘가 날 찾나? 건넛산 과부 토끼가 연분 땃자고 날 찾나?”

(다) 토끼 듣고,

“어, 그놈 본데없이 생겼으되 속에 글이 담백 든 놈이구나. 내가 이놈한테 문자 한 마디라도 밀려서는 나뿐 아니라 세상 문장가들이 나로 인해 망신을 당할 테니, 내가 전일에 배운 문자를 이놈 앞에 한번 베풀어 볼밖에. 여보, 별 주부 내 문자 꾸러미 굴러 나가요.”

“어디 나와 보시오.”

“법안 흥안이요, 호안은 백발 되고, 당구삼년에 폐풍월하니 우이독경이요, 제사상은 어동육서 흥동백서요, 일구이언하는 놈은 못된 놈이지.”

(라) 길을 가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언덕 위에 이르러 땀을 식히려고 배나무 아래에서 쉬었다. 그 나무에는 탐스러운 배가 높이 매달려 있었다.

“에구, 저 배 맛있겠는걸.”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배 따 드릴까요?”

“저렇게 높이 있는 걸 어떻게 따.”

“그냥 저 하는 것만 보세요.”

며느리는 나무를 향해 엉덩이를 들이대더니 방귀를 “뽕!” 내뿜었다. 그랬더니 나무줄기가 뒹뒹뒹하고 가지가 덜덜 떨리면서 배가 후두두 떨어져 내렸다. 시아버지가 먹어보니 향기까지 더해서 그런지 맛이 천하에 일품이었다.

(마) 어디선가 북이 쿵 쿵 쿵, 세 번을 울었다 뒤이어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어사또를 보필하는 나졸들이 잔치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암행어사 출또요!”

누군가 우렁우렁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들끓는 듯, 하늘에 떠 있는 해도 잠깐 발을 머무르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잠깐 날지 못하여 푸득푸득 떨어졌다. 남문에서 “출또요!”, 북문에서 “출또요!”, 출또 소리 천지에 진동하고, 좌수, 별감 녀을 잃고, 각 읍 수령 도망칠 때 그 거동이 장관이었다. 임실 현감은 하도 급해서 갓을 거꾸로 뒤집어쓰고는, (중략)

구례 현감은 말을 거꾸로 타고 채찍질을 하니 말이 뒤로 달아났다.

“허, 이 말이 웬일이냐? 본래 목이 없느냐?”

“거꾸로 타셨소. 내려서 바로 타시오.”

“어느 거를에 바로 타겠느냐! 목을 빼어다가 말 똥구멍에 박아라.”

변 사또는 정신이 아득하여 바지에 똥을 싸서 엉겁결에 내실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어, 춥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단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때에 나졸들이 벌 떼같이 달려들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함부로 둘러치니, 부서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북이었다. 교자상도 부러지고 찻상도 넘어지고 이런 야단 법석이 없었다.

어사또는 동헌 마루에 높이 앉아 분부하였다.

“남원부 변 사또는 악행을 일삼으니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둬라!”

변 사또를 옥에 가둔 어사또는 옥중에 갇힌 죄인의 사연을 다 들은 후 죄 없는 사람은 즉시 풀어 주었다. 풀려난 사람들은 기뻐 춤을 추며 어사또의 공덕을 치하하였다.

14. 이 작품의 변천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토지설 → 토끼전 → 수궁가 → 토의 간
- ② 구토지설 → 토끼전 → 토의 간 → 수궁가
- ③ 구토지설 → 수궁가 → 토끼전 → 토의 간
- ④ 구토지설 → 토의 간 → 토끼전 → 수궁가
- ⑤ 구토지설 → 토의 간 → 수궁가 → 토끼전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2개)

- ① 자신의 상황을 과장한다.
- ② 다양한 고사를 인용한다.
- ③ 무식한 모습이 드러난다.
- ④ 두서없이 상황을 나열한다.
- ⑤ 상대의 허점을 찔러 공격한다.

16.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격이 해학적이고 풍자적이다.
- ② 과장된 내용이 웃음을 유발한다.
- ③ 제재는 방귀를 잘 뛰는 며느리이다.
- ④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이 날카롭게 드러나 있다.

17. (마)에 드러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과 옳지 않은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백성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
- ② 두 사람의 사람을 방해하는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에 대한 비판과 역경을 뛰어넘어 진실한 사람을 획득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 ③ 낮은 신분의 준향이 양심적인 양반 이몽룡과의 결합을 통해 자기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봉건 사회의 한 모습인 열녀 사상이라는 표면적 주제와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인간 해방이라는 이면적 주제가 동시에 나타난다.
- ⑤ 민담에서 기원하여 판소리를 거쳐 소설로 정착되기까지 조상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선인들의 삶의 모습과 사고방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니리 : 후닥닥 하다가 자라와 토끼가 서로 마주쳤구나.

“아이고, 코야!”

“아이고, 이마뺨이야! 여보, 초면에 방정맞게 남의 이마는 이리 들이받나?”

“당신 이마보다 복스럽게 생긴 내 코도 다쳤소.”

“그러면 우리 (㉠)이니 통성명이나 하려오?”

“그럼시다. 대체 계는 누구라 하시오?”

“예, 나는 수궁에서 벼슬살이하는 별 주부 별 나리라 하오.”

토끼 듣고,

“예, 나는 천상 월궁에서 시간을 다스리던 달 속의 토끼였더니, 신선의 술 취하게 먹고 장생불사 약 잘못 지어 이 산중에 귀양 온 토 선비라 합니다.”

(나) “토 선비, 토 선비 하더니만 글도 잘 지으려니와 풍채도 신선 같구려. 저러한 귀한 몸이 대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시는지 어디 세상 경치나 일러 보시오.”

토끼 듣고 좋아라고,

“내 팔자야 최고지요.

중모리 : 인적 없는 녹수청산 해 질 녘에 잠들었다가 달 떠오르면 잠을 깨어 값없는 열매들을 양식 삼아 맛있게 먹고, 이내 몸은 일이 없어 명산 찾아 구경할 제, 여산 동남쪽 오로봉과 진국명산 만장봉을 기엄기엄 기어올라 가만히 굽어보니 꽃 사이 나비는 홀날리는 눈발 같고 버들 위 피꼬리는 흩어지는 금 조각이라. 모란, 작약, 영산홍과 철쭉, 진달래는 여기저기 피었어라. 밤이면 달 보고 낮이면 소풍할 제, 강산 풍경 흥취 속에 지상신선 나뿐이라. 적송자, 안기생은 나의 제자 삼아 두고 이따금 심심하면 종아리 때려 가며 그로써 소일하나이다.”

(다) “허허, 그분이 거 초면에 방정맞은 말을 하는고?”

“아니, 그대의 이 세상 팔난 내 이르게 한번 들어 보시오.

자진모리 : 보잘것없는 토끼 그대 신세, 봄여름 다 지내고 대한 엄동 설한풍에 골짜기마다 눈 쌓이고 봉우리에 바람 칠 제, 화초 열매 전혀 없이 앵무 원앙도 굶어졌다. 어둑한 바위틈 발바닥 할짝할짝 던져진 듯 앓은 골은 귀양살이 모양이라. 꽃 피는 봄 이월 굶주린 배 채우려고 이리저리 헤맬 적에 골골이 묻은 것이 모가지 채어 갈 텃이요, 산봉우리마다 서 있는 것이 매 받은 사냥꾼이라. 모가지 채이게 되면 목 졸려 대롱대롱 제수 고기 될 것이요, 물이 끈, 사냥개가 소나무 떡갈잎 포기 사이로 뛰어갈 적에 토끼 놀래 호드득 호드득. 사냥꾼아 매 놓아라. 해동청 보라 매가 방울 떨쳐 주먹을 박차고 펄펄 수루루 달려들어 그대 굶전 양발로 당그렇게 추어 들고 고부랑한 주둥이로 양미간 골치 대목을 그저 콕콕.

“허허, 그분이 그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그러기에 누가 거 있는대? 산잔등으로 돌지.”

(라) “어따, 그분네가 그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그리 점점 하네. 그러기에 누가 거 있는대? 너른 들로 다니지.”

“들로 달아나는 토끼, 나무하는 아이놈들 몽둥이 둘러메고 들 토끼 잡으러 가자, 없는 개 부르며 워리 두두 쫓아갈 제, 그대 간장 생각하니 적벽강 패주하던 조맹덕 정신이라. 짧은 콩지 살에 끼고 적은 눈 부릅떠 죽기로 작정하고 올라갈 제, 무슨 정으로 소풍하고 무슨 정에 달을 보리. 아까 안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다는 그런 거짓부렁이를 어느 뉘 앞에다가 하려고? 에이 여보시오, 그런 소리 마시오.”

18.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절치부심(切齒腐心) ② 피차일반(彼此一般)
③ 견원지간(犬猿之間) ④ 형설지공(螢雪之功)
⑤ 와신상담(臥薪嘗膽)

19. (가)에서 웃음이 유발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② 인물의 행동을 과장하고 있다.
③ 두서없이 상황을 나열하고 있다.
④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⑤ 유식한 체하려다가 무식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20. (나)에서 토끼가 궁극적으로 자랑하는 삶은?

- ① 한가로운 삶 ② 제자를 가르치는 삶
③ 부귀공명을 누리는 삶 ④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삶
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

21. 별 주부가 말하는 ‘팔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먹이를 나눌 가족이 없는 것
② 물이꾼, 사냥개에게 쫓기는 위험
③ 사냥꾼이 놓은 매에게 채일 위험
④ 골짜기마다 묻은 땀에 걸릴 위험
⑤ 엄동설한에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남해 용왕이 괴이한 병을 얻고 슬퍼할 때에 신선의 옷을 입은 도사가 용왕으로 내려와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고 이른다. 용왕이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 올 사람을 찾으니 여러 군신 중에 별 주부가 나선다. 물에 오른 별 주부는 온갖 짐승들이 모여 나이 자랑을 하는 광경을 본다. 마침 그 자리에 나타난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안 별 주부는 온갖 곤욕을 치른 끝에 겨우 도망을 친다. 충성이 부족한 탓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 별 주부가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한곳을 바라보니 토끼같은 짐승이 있었다.

(나) “예, 나는 천상 월궁에서 시간을 다스리던 달 속의 토끼였더니, 신선의 술 취하게 먹고 장생불사 약 잘못 지어 이 산중에 귀양 온 토 선비라 합니다.”

자라가 토끼 이름을 어찌 반겨 들었던지 문자를 쓴다는 게 앞뒤가 안 맞게 쓰는 것이었다.

“금일상봉이 하상견지만만고? 무거불측 호래자식이로고.”

토끼 듣고,

“어, 그놈 본데없이 생겼으되 속에 글이 담백 든 놈이구나. 내가 이놈한테 문자 한 마디라도 밀려서는 나쁜 아니라 세상 문장가들이 나로 인해 망신을 당할 테니, 내가 전일에 배운 문자를 이놈 앞에 한번 베풀어 볼밖에. 여보, 별 주부 내 문자 꾸러미 굴러 나가요.”

“어디 나와 보시오.”

“법안 홍안이요, 홍안은 백발 되고, 당구삼년에 폐풍월하니 우이독경이요, 제사상은 어동육서 흥동백서요, 일구이언하는 놈은 못된 놈이지.”

이놈이 문자를 제멋대로 써 버리니 이런 야단이 없지. 별주부 듣고 웃으며 이르기를,

“토 선비, 토 선비 하더니만 글도 잘 지으려니와 풍채도 신선 같구려. 저러한 귀한 몸이 대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시는지 어디 세상 경치나 일러 보시오.”

(다) 진양조 우리 용왕 즉위하니 온갖 족속 귀히 여기도다. 서왕모의 천일주와 옥반에 담은 안주, 불로초 불사약을 취토록 먹은 후에, 흥취가 도도하면 갖은 미색, 풍악을 놀잇배에 가득 싣고 요지로 들어갈 적에 저 멀리 섬들은 물속에 그러 있고 삼천리 해당화는 약수에 붉었구나. 천하 태평하여 달 밝은 추강 위에 어적 소리 화답이라. 이태백이 이런 흥미 알았으면 세상에 왜 있으리? 원컨대 토 서방도 나를 따라서 수궁을 가면 혼련대장은 할 것이고, 미색 풍악을 맘대로 데리고 만세동락을 하오리다.

(라) ㉠아니리 토끼란 놈 듣더니,

“대체 참 좋기는 좋은가 보오 꼭 그렇게만 될 테면 나 당신을 따라가겠소만.”

“아, 되고말고.” / “아, 그러면 나 따라갈 테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갈까요?”

“같이 내려갑시다.” / “그럼 같이 갑시다.”

22.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판소리 다섯 마당 중의 하나이다.
- ② ‘수궁가’ 전체 짜임 중 절정에 해당한다.
- ③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계를 풍자하였다.
- ④ 판소리계 소설인 ‘토끼전’의 판소리 사설이다.
- ⑤ 고사성어나 한문 어투 등의 지배층 언어와 비속어 등의 서민 언어가 섞여 있다.

23.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왕 : 이타적이며 왕으로서 권위가 있다.
- ② 별 주부 : 공명심이 강하고 충성스럽다.
- ③ 별 주부 : 뛰어난 언변으로 영리한 토끼를 꾀어 용궁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한다.
- ④ 토끼 : 허풍이 심하고 아는 것을 뽐내는 것을 좋아한다.
- ⑤ 토끼 : 허영심이 많고 부귀공명에 대한 헛된 욕심을 가지고 있다.

24. 판소리 장단 중 가장 느린 장단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휘모리 ② 중모리 ③ 진양조
- ③ 중중모리 ④ 자진모리

25. 다음 중 판소리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끼리 짝지은 것은?

- ㉠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는 부분이다.
- ㉡ 소리 도중 고수가 말하는 감탄사이다.
- ㉢ 이 부분에 창자(唱子)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 ㉣ 그때그때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 이야기로 나아가게 한다.
- ㉤ 판소리 창자(唱子)가 소리하는 도중에 하는 춤이나 몸짓이다.
- ㉥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 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을 말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해설] 옛날과 현재는 시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전 문학을 통해 실용적인 정보보다는 삶의 지혜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 [정답] ②

[해설] '아니리'는 창을 하는 중간 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실 부분을 말하고 '너름새'는 창자가 소리하는 도중에 하는 춤이나 몸짓을 가리킨다.

3) [정답] ②

[해설] 이 작품에서 사건의 발단에 해당하는 것은 용왕의 병에 토끼의 간이 약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용왕의 병을 낫게 할 토끼의 간을 구하러 별 주부가 육지로 오게 된다.

4) [정답] ②

[해설] ㉠부분에서는 다양한 의태어와 수식어를 사용하여 토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5) [정답] ①

[해설] (라)에서 별 주부가 수궁 경치를 과장되게 묘사한 궁극적인 이유는 토끼를 꺾어서 수궁에 데려가기 위해서이다.

6) [정답] ②

[해설] (가)에서 토끼는 유식한 척하지만, 의도와 맞지 않는 잘못된 문자를 사용하여 무식함이 드러난다. 이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요소에 해당한다.

7) [정답] ④

[해설] (다)에서 별주부는 토끼를 칭찬하는 한편 앞으로 닥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즉,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경고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8) [정답] 이놈이 문자를 제멋대로 써 버리기 이런 야단이 없지.

[해설] (가)~(라) 중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개입된 부분은 (다)에서 '이놈이 문자를 제멋대로 써 버리기 이런 야단이 없지.'라는 부분이다.

9) [정답] ①

[해설] (나)에서 토끼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허풍스러운 말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0) [정답] ①

[해설] 이 글에서 토끼나 별 주부, 용왕 등은 성격이 변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이다.

11) [정답] 나는 수궁에서 벼슬살이하는 별 주부 별 나라 하오.

[해설] 토끼와 자라가 만나는 대목인 (가)를 보면 자라가 자기를 '나는 수궁에서 벼슬살이하는 별 주부 별 나라 하오.'라고 소개함을 알 수 있다.

12) [정답] ③

[해설] (나)~(다)의 대화에서 별 부주가 토끼에게 닥칠 위험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고 토끼는 반론을 제기하여 별 주부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이 대화에서 토끼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지도 않고 해결책을 별 주부에게 묻고 있지도 않는다.

13) [정답] ③

[해설] (라)에서 별 주부는 토끼를 꺾기 위해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궁의 호화로운 생활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별 주부가 토끼를 데리고 수궁에 가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정답] ③

[해설] 이 작품은 근원 설화 '구토지설'에서 판소리 사설 '수궁가'를 거쳐 고전 소설인 '토끼전'에서 신소설 '토의 간'으로 변천 과정을 거쳤다.

15) [정답] ②, ④

[해설] ㉠에서는 다양한 고사를 인용하면서 두서없이 상황을 나열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6) [정답] ⑤

[해설] (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담으로, 방귀를 잘 끼는 머느리를 제재로 한다. 인물 간의 갈등보다는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17) [정답] ①

[해설] (마)에 드러난 부분은 암행어사 출도 장면이다. 표현과 인물들의 행동은 독자에게 웃음을 주지만 내용상으로는 탐관오리 변 사또가 어사또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과 옳지 않은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백성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8) [정답] ②

[해설] ㉠에는 '두 편이 서로 같다'는 의미의 피차일반(彼此一般)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절치부심(切齒腐心) : 대단히 분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임 ③ 견원지간(犬猿之間) : 개와 원숭이의 사이처럼, 매우 사이가 나쁜 관계 ④ 형설지공(螢雪之功) : 가난한 사람이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함을 일컫는 말 ⑤ 와신상담(臥薪嘗膽) : 원수(怨讐)

를 갇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뎌

19) [정답] ②

[해설] (가)에는 인물들이 서로 부딪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즉, 인물의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20) [정답] ①

[해설] (나)에서 토끼는 자연을 벗 삼아 한가롭게 사는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있다.

21) [정답] ①

[해설] 별 주부가 말하는 ‘팔난’은 엄동설한에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 골짜기마다 문은 덧에 걸릴 위험, 물이 끈, 사냥개에게 쫓기는 것, 사냥꾼이 놓은 매에게 채일 위험, 사냥꾼의 조총에 맞을 위험, 나무꾼에게 잡힐 위험 등이다. ‘먹이를 나눌 가족이 없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22) [정답] ②

[해설] ‘수궁가’ 전체 짜임 중 ‘발단’, ‘전개’ 부분에 해당한다.

23) [정답] ①

[해설] 용왕은 자신이 살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해 올 신하를 찾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24) [정답] ③

[해설] 판소리 장단은 ‘진양조 → 중모리 → 중중모리 → 자진모리 → 휘모리’의 순서대로 빨라진다.

25) [정답] ④

[해설] ㉠는 창, ㉡는 추임새, ㉢는 너름새(발림)에 대한 설명이다.